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마태복음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마 6:1-8)

성도에게 기도 생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다음의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1,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기도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외식하는 기도,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식'이란 헬라어로 '히포크리타이'인데, 이것은 '가면을 쓴 배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것을 사람들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을 현신짜처럼 버리고 오히려 사람에게서 칭찬과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본래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죄로 인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된 가장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2,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공개적인 사랑 고백도 중요하지만 진짜 깊은 사랑의 표현은 은밀한 중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십니다. 골방이란 주님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 곳이 새벽기도 자리이든, 거실이든, 아니면 사무실이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모두 골방이 됩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마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3. 중언부언 하지 말라

중언부언을 헬라어로 '바타로 게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 말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형식적인 기도,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중언부언 하는 기도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간결한 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간구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말로 기도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8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기도하는 그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Pray in Secret! (Matt. 6:1-8)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prayer life for Christians. Everybody knows the importance of prayer. On the other hand, it is true that we feel so burdened about it. However, prayer is still one of the greatest blessings we have in Christ Jesus.

The text explains to us how we have to pray in the following.

1. Don't pray to be seen by men!

The greatest caution when praying is to pray in hypocrisy. In other words, you must not pray in order to be seen by men. 'Hypocrisy' means 'an actor putting on a mask', 'hipocritai' in Greek.

Sometimes by doing before men what we must do before God, we throw away God's compliment and reward like an old shoe. In doing so it seems as though we would rather get a compliment and reward from men, rather than from God.

God already knows what we need, before we ask Him. Nevertheless, the reason why we must pray is that we are able to share friendly communication with God through the pray.

"Let us then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Heb. 4:16).

The way originally to approach God was completely closed due to our sins. Therefore, Jesus Christ's death on the cross enables us to approach the throne of God with confidence,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That's why pray, is the most beautiful blessing through the cross.

2. Pray in secret!

Though the public confession of love is important, the expression of truthful love should be fulfilled in secret. So, Jesus says, 'when you pray'. Go into your room.' Your room refers to the room where you can personally spend your time with Jesus. Whether the room is for a prayer at dawn, a living room, or an office, the time when we are able to spend and the room where we are able to share our communication, relationship with the Lord, are all our rooms to pray.

God likes the pure mind. He likes the mind that focuses on Him. Whenever we pray in our room we must concentrate our mind on God and pray with a pure mind.

3. Don't keep on babbling!

Keeping on babbling refers to "batarogeo" in Greek, which means "repeating the meaningless word", and not putting our heart and soul in our prayer.

The Pharisees used to have a formal prayer, a halfhearted prayer, and a repetitive prayer of saying over and over again to be heard by men too much. However, if we pray the Lord's prayer taught to us, we can find out that it is full of our heart and entreaty toward God. Our God hears our prayer despite our words. (v. 8)

My beloved Christians!

Wherever you pray, by sharing a friendly relation and communication with God in secret, I sincerely pray that the place where you pray will be the synagogue to meet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제4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개강

주제: 현대 목회와 치유 상담(치유목회)
3월5일(월) 오후2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서울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한국기독교(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사도행전 강해가 진행되는 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제4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고 2교시는 10명의 외부 전문가들의 주제별 강의가 3월5일(월) 오후2시 현대 목회와 치유 상담(치유목회)을 주제로 개강한다. 이번 학기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하여 은혜받고 교회갱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한다.

다락방사역 리더 일일수련회

3월 9일(금), 10:30 ~ 14:30

다락방사역 리더 일일수련회가 3월 9일(금) 오전 10시 30분 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본당에서 열린다. 다락방사역 리더로 교구장, 부교구장, 간사, 다락방장, 부다락방장이다. “다락방 사역을 통한 축복”이라는 주제로 강사로는 박노철 목사가 선다. 성도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황성주 목사 초청, 금요기도회

3월 9일 (금) 오후 8시 20분 - 본당

3월 9일(금) 황성주 목사를 모시고 특별기도회를 가진다. 강사에 대한 약력은 다음과 같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

황성주 목사 소개

- 1957년 서울대 의대와 동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 독일 프라덴바일러 암센터 근무/
- 대체의학요법인 미술치료법을 연구, 국내 최초 소개.

- 1992년에 NGO ‘국제사랑의 봉사단’을 창단
- 1994년 암전문병원인 ‘사랑의 클리닉’을 설립
- 1999년에 (주)이롬 / 황성주생식 개발,
-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전공 ‘꿈이 있는 사랑의 교회’ 사역 목사로 활동
- 저서: <꿈의 씨앗을 심어라>외 13권의 책 저술.
- 대한학교 운영

농어촌100교회 결연 현황

노회	교회명	교역자	후원자	구좌(좌)
경안노회	셋별교회	최종희 목사	박노철(김은경)	1
	오천교회	한경인 목사	은기정(김경숙) 권명희, 가브리엘전양대	1
	두산교회	박미혜 전도사	제1스데반회(2구좌) 정길영, 오유식3	2
	이송천교회	이봉우 목사	김준목 이관규 오정수(이영희) 김재근(안분선10) 길이세(임송재)	1
	광은교회	민만기 목사	김철진(노의정), 이강진(이신영), 이훈, 조용기, 남현주	1
	진성교회	김기식 목사	이명구(문옥일), 김은정, 조순영, 1-11다락방	0.5
	안흥교회	김성은 목사	최형열(김찬진), 방계운(박현미), 김동봉, 이지동, 임영숙, 강석조, 김웅기, 김진해(전현주)	1
	방하제일교회	최근상 목사	이준호3(이은희), 이민희(신순자), 이동만, 박경주(서혜원), 리승현, 오지열	1
	감은교회	박응현 전도사	김해수(윤운), 이성우	0.5
	울목교회	우성화 전도사	송동선, 문성주, 김용환, 김지숙, 김복녀, 김사라	1
	부남명성교회	신덕만 목사	김명옥(오은경) 유문건(김안성), 김형성(최금숙), 김홍천	0.5
	팔성교회	황성배 목사	김만전(이영자), 김광민(박민숙), 한승전(최미아5), 유종기, 양지훈(최성희)	1
	송일교회	정병욱 목사	박노형(강민정), 구귀순, 정동해(김복순), 강낙훈(심성희), 5-12다락방, 김진희	0.5
	물한동교회	강화심 전도사	이영기(이영숙), 이남성(최영련), 최양진(강운숙), 지성철(유요중)	1
	원호평강교회	전병오 목사	강홍래11, 조희, 이현수, 황선옥1, 박화실(이은지)	0.5
	원천교회	김도환 목사	윤동수, 김원중(이갑연)	0.5
	용각교회	이연숙 전도사	송영재(함정희)	1
	온혜교회	이상철 목사	안홍희(전화진)	1
	병옥교회	김성한 전도사	이영조	0.5
	화곡교회	백영주 목사	제1권사회(2구좌), 박종권(김희경2), 박찬성(심명숙), 박형수	0.5
강원노회	월송교회	남금준 전도사	김권집(왕경애1), 민해성, 정은기(노애리), 도라, 발림,	1
	춘천동산교회	김창부 목사	에스디, 엘리아, 이강민(하숙), 갈창배	0.5
	화방교회	김인동 목사	노중환, 노문환(장정화), 임상현(서희숙), 김재중(김유경), 나미용, 안드레	0.5
	작실교회	허만승 목사	베드로, 뱀뱀	1
	공명교회	이해민 목사	이삭, 리브가, 오정숙, 조용기(이경란), 변만중(박재숙)	1
	고한남부교회	유운옥 목사	마리아, 비올, 주화인, 정진문(정유정)	1
	서흥교회	김광근 목사	하나, 모세, 김준옥	1
	금대교회	유웅수 목사	사라, 아브라함, 살롱권사회, 박정자14, 김선태(김옥순), 이호, 원명희, 송재현(선순례)	0.5
	가정리교회	이영기 목사	청년1부, 초등부교사, 이상욱(장성자1), 이조흔(이교은), 이우식	1
	니전중앙교회	이주형 목사	전수자, 박정선, 양은정, 홍석현, 김정근(김수정), 최광성, 이우리, 최향봉	0.5
은퇴목사	박영근 목사	교역자회, 오혜경	1	

다음주 계속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39]

(문 34) 여러 재앙이 애굽 온 땅에 내릴 때(출 8:16, 9:22)
애굽 사람에게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영
향이 있었습니까?

(답) : 성경에서나 어느 문학작품에서도 ‘온(all) 이라 는 말이 어떤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절대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가령 출9:6에서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족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족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고 하였습니다. 고센 땅에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 중에는 유대인이 아닌 잡족들도 있었으나(출12:38) 그들의 가족도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열 가지 재앙 중 처음 세 재앙 즉 피 재앙(출 7:17-23), 개구리 재앙(출 8:1-14), 이 재앙(출 8:16-19)은 히브리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지에 대하여는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처음 두 재앙의 경우 마실 물이 없어 그리고 기어오르는 개구리들로 인해 히브리인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애굽인들이 고통을 받았던 것은 확실합니다.(출 7:21, 8:4)

그러나 네 번째 재앙부터는 분명한 구별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 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출 8:21-22)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인 전염병의 경우에도 애굽의 모든 가족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족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출 9:6)

여섯 번째의 악성 종기의 재앙 시에도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과 요술사들에게까지 퍼졌으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출 9:11) 일곱 번째 우박 재앙 시에도 애굽 온 땅에 내려 밭의 모든 채소와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출 9:25-26)

아홉 번째 흑암이 애굽 온 땅을 덮는 3일간의 재앙 시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출 10:22-23) 열 번째 재앙 시에도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족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으나(출 12:29-30) 이스라엘 집은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출 12:23)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에 사는 애굽인에게도 재앙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온 땅이나 모든 애굽 인이라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자녀들과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들은 예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주 계속)

4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시작하며

“현대목회와 치유상담(치유목회)”



김재진 협동목사
(한국기독교 문화진흥원 부원장)

20세기 신학과 철학의 ‘화두(話頭)’는 ‘삶(Leben)’ 혹은 ‘생명’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20세기의 신학과 철학을, 한 마디로 말하여, ‘삶(생명) 신학 혹은 철학: Lebensphilosophie’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20세기 1-2차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인류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삶의 질(Quality)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서방 선진 국가는 전후의 복구 및 부흥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질’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세계 평화’에 대한 문제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계 평화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

조하는 각종 국제기구들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21세기를 들어서면서, 인간은 또 다른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산업 자본주의와 고도 성장에 여념이 없던 인간은 산업화, 물질화, 기계화 등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스스로 병들어가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게 되었고, 급기야 이제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각종 정신적 혹은 심리적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6.25 동란이후, 기초 생계 문제해결에 여념이 없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도성장’이라는 이념아래 산업화, 공업화, 자본화의 물결에 휩쓸려 자기 삶의 모습을 되돌아 볼 기회가 없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교회개혁, 선교, 부흥성장’이라는 목적달성 일변도 아래 평신도들의 마음은 온전히 ‘교회’라는 ‘제도적institutional 신앙’에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정작 자신의

심리적, 영적, 신앙적 문제를 ‘설교’와 ‘신앙생활’을 통하여 해결 받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금번 제4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는, 교회가 현대인, 특히 성도들의 정신적, 심리적 질병치유와 ‘인간관계’, 좁게는 ‘가족관계’ 회복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아래, “현대목회와 치유상담(치유목회)”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의 어떠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깊이 인식하게 될 것이다. ‘무작정 불러 모음’이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즉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면서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koinonia and diakonia)의 공동체로 어떻게 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까? 연구하는 세미나가 될 것이다.

시순절 기도



꽃피는 봄날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김희옥 권사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쉽게 쓰러지고
부서지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미 죽은 바 되었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저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절박하신 마음.
하나님! 저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아드님의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나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저희에게 보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내 곁같이 사랑하기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지극히 높으시고 경배 받으실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당하신 채찍과
조롱과 멸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던
끝고다 언덕길, 십자가의 고통...

아무리 뜨거운 눈물 흘려 울어도
도저히 깊은 길 없는 은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의 길로 건져주신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삶의 순간순간 내 자아가, 욕심이, 교만이
있을 가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은 채
죄를 짓고 마는 저희를 용서하소서.
시순절기간 온전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고난을
묵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아
영과 육이 깨끗하게 하사
꽃피는 봄날 주님의 부활에
저희도 곱고 순결한 새싹이 되어 주님 만나게 하소서.
참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안성 목사(유년부 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1학년 친구들의 초등학교 입학 축하한다!
사랑하는 1학년 친구들아,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첫째, 하나님께서는 너와 항상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언제나 기다리신단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려고 현관을 나서기 전,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고 떠나자. “하나님, 오늘도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아빠. 엄마께 “아빠. 엄마, 오늘도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학교에 가기 전에 꼭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 00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력과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또한 학교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두렵고 불안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여러 가



천국시민양성

친구들아, 두 가지만 기억하자!

지 방법으로 너를 도와주신단다!
둘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지금부터 꿈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자!
세상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른 채, 마음이 슬프고 힘든 사람들이 정말 많아. 또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필요한 약이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참 많단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자라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길 바라셔서.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좋은 부모님과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건강을 주셨단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꿈을 세우고 무엇을 배우든지 열심히 집중해서 노력하길 바래. 하나님은 너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신단다.
목사님과 유년부 선생님들도 매일 집에서,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기도모임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단다. 너희들은 잘 할 수 있을거야! 사랑해~^^

천국시민양성 - 소요리문답부

개혁주의 신앙의 기초 - 소요리문답부

안다혜 집사(소요리문답부 교사)

개혁주의 신앙의 기초를 배우는 소요리문답부로 오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까?
가슴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가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전하신가요? 아님 조금 식었나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뿌리 깊은 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부로 초대합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거침없이 토해내는 송실대 신학교수이신 김은수 목사님의 칼 같은 강의를 통한 옅은 분별력을 반전시킬 좋은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소그룹으로 편성된 반들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은혜 충만한 얼굴을 마주하고 둘러앉아 깊은 친교와 기도하는 결집력과 끈끈한 사랑입니다. 그 뿐



아니라 1년 과정 중 2번에 나누어 그 동안 배운 것을 검토하는 성경퀴즈 대회도 있어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두 겹줄 세 겹줄로 돈독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1년 과정 후 문득 돌아보면, 나의 믿음이, 나의 사랑이, 주님과 나의 내밀한 관계가 주님 앞에 서슴없이 나아가는 중인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 타는 첫사랑을 다시 회복 시키실 것입니다. 가슴 벅찬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초대

합니다. 배운 것이 너무 오래 되었다고 미진해 하시는 성도들이시여!

다시 한 번 주님께 대한 강건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소요리 문답부로 공부하러 오세요

<서울교회 2012년 소요리 문답부 안내>

- 연 제 : 주일 2부 예배 후 12시 30분~1시 30분
- 장소 : 6층 601호
- 무엇 : <개혁주의 신앙의 기초> 강좌
- 누가 : 현 송실 대학교 기독교 대학원 교수이신 김은수 목사님
- 과정 : 52주로 나누어진 1년 과정
- 기타 : 1년 후 수료식과 함께 수료증 교부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3월 5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서울장신대대학원에서 1학기말까지 강의를 한다. 3월 6일(화) 대신대, 신대원 및 학부생 개강수련회에서 특강을 한다. 3월 8일(목) 제44회 국가조찬기도회 축도를 한다. KAIST(카이스트)과학기술대학원 특강을 한다. 한국장로교육원 개강 특강을 한다. 3월 10일(토)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월례모임을 소집한다

■ 피선 : 이동만 집사(사)남성패션 문화협회 수석부회장
■ 이사 : 5교구 김혜연집사, 박은영집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향촌 롯데아파트 307-1003

■ 주간식당봉사 : 엘리아선교회(3.4) 모세선교회(3.11)

■ 금주의 식사 : 오영자 권사 가정(생일 감사드리며) 교회제공

서울교회 사랑부에서는 2월 12일(주)에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로 겨울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겨울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소금과 빛!'을 주제로 한 상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찬양 율동 시간, 그리고 만들기 시간과 레크레이션 시간 등을 통해 보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찬양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부 겨울수련회를 마치고

소금 빛 그리고 사랑부

윤지현 성도(사랑부 교사, 1교구)



겨울성경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일정을 따라가며, 이들이 찬양을 배우고 율동을 배우는 데에 다른 사람들보다 느낄지는 몰라도, 가지고 있는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만들기를 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두 팀으로 나누어 이루어진 게임들을 하며, 학생들이 모두가 적극적으로 합

게 참여하여 학생들과 교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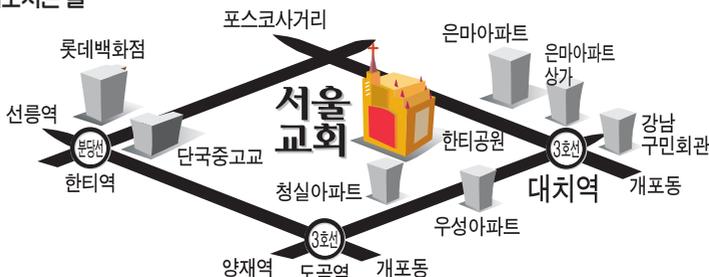
몇 주 전부터 프로그램 준비를 시작하여, 겨울성경학교 하루 전인 11일 토요일 예배실을 꾸미는 것까지 많은 선생님들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또한 겨울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를 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즐겁게 겨울성경학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빛과 소금이란 생활에 있어 가장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 그리고 부패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소금이며,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기독인으로서 바르고 참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이제 시작하는 목회자신학세미나, 성경대학, 그리고 열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지역을 섬기는 사역이 지속 되도록
2. 3월 9일(금)에 있는 다락방 사역 리더 일일수련회를 통해 말씀과 사랑의 교제로 영적 리더들이 힘을 얻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3. 금요기도회에 초청되는 항성주 목사의 간증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